

#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관심 없다”

## 광주·전남 소비자 인지도 전국서 가장 낮아 12.6%만이 “알고 있다”...전북 95%와 대조

광주·전남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2명은 의무휴업에 대해 아예 몰랐고, 3명은 관심이 없었다. 의무휴업에 대해 알고 휴무일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겨우 1명에 불과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의락 민주당의원 1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인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광주·전남지역은 ‘의무휴업을 한다는 사실과 휴무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6%로 전국 평균(45.0%)을 훨씬 밑돌며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전북(95.0%), 경기(81.4%), 경남(73.8%), 부산(63.3%), 대전(46.0%), 강원(44.3%), 대구(40.2%) 등 대부분의 지역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또 ‘휴무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도 광주가 17.1%, 전남이 1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5.9%)을 비틀어 경

기(7.8%), 충북(7.1%), 서울(4.4%), 대전(2.0%), 울산(1.0%) 등 다른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광주가 34.2%, 전남이 28.2%로 전국 평균(5.9%)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충남(5.9%)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응답율은 0~2% 대에 그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를 보이는 수치다.

의무휴업에 대해 알고는 있어도 언제 휴무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광주 36.0%, 전남 35.9%로 조사됐다.

광주지역은 의무휴업이 실시될 경우(복수응답) 대형마트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재래시장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반면 전남은 재래시장을 재래시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겠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홍의원 의원은 이번 조사는 조사기관 선정에서부터 문항설계, 결과분석 등 전 과정이 대형마트에 유리하게 ‘왜곡’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지 않아서 기타 혹은 무응답으로 분류돼야 할 응답자까지 포함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설문지를 보면 ‘이전에도 그 시간대에는 쇼핑을 하지 않았다’·‘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와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있는데, 이들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분명한 수치를 빼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확대와 의무휴업일 확대에도 대형마트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60.4%와 57.8%가 아닌 35.0%와 27.6%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AC닐슨은 지난 7월8일과 22일(둘째·넷째주 일요일) 대형마트나 SSM에서 쇼핑을 하러던 소비자 1585명(광주 111명, 전남 103명)을 표본 삼아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영향을 파악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샘소나이트 어린이 가방도 있어요” 16일 (주)광주신세계 7층 여행가방 전문 브랜드인 ‘샘소나이트’ 직원들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여행가방과 백팩을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여행가방 19만9000원, 백팩 9만8000원. <광주신세계 제공>

## 환율 1년만에 1110원선 깨져... 1107원 연중 최저치

미국과 중국에서 양호한 경제지표가 발표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110원선이 무너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3.30원 내린 1107.20원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미국의 9월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데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성장률이 내년 3.5%로 반등할

것이라고 언급한 영향으로 1.50원 내린 1109.00원에 개장하고서 1106.00원까지 낙폭을 키웠다.

환율은 나흘 연속 하락해 장중, 종가 기준 연중 최저치를 모두 경신했다. 환율은 종가 기준 작년 10월31일 1110.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작년 10월28일 이후 처음으로 1110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주말 사이 발표된 중국의 9월 무역수지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큰 흑자

를 보인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부추겼다. 위안화는 9월 이후 가장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리적 지지선인 1110원선이 무너진 만큼 환율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큰 자리수인 1100원선을 앞두고는 하락 속도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엔 환율은 오후 3시3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0.01원 내린 100엔당 1,402.10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광주은행-광양경제청 개발사업지원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요 개발사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신규 투자유치기업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재훈기자 lion@kwangju.co.kr

## 금융피해 서민들에 긴급생계비 최대 500만원 지원

금융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에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을 빌려주는 ‘새희망힐링론’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한 새희망힐링론의 재원을 금융 관련 피해자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에 사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다.

이들 가운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 펀드 불완전판매, 무인기 투자자문·선물업자 관련 피해를 본 사람이거나 보훈사고

사망자 유자녀다.

대출금액은 최대 500만원이고 금리는 연 3%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한다.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금리를 1%포인트 낮춰준다.

자세한 사항은 신복위 상담센터(1600-5500) 또는 홈페이지(www.cers.or.kr)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 자동차공업 일원화 조치 단행

###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28>

아시아자동차공장 유치운동 ④

### 소형차 위주·디젤 탑재 등 정부가 업계 유도

한국 최초의 근대식 세단형 승용차를 생산해 한국 자동차공업의 한 단계 끌어올린 새나라자동차는 단숨에 국내 자동차 업계의 독점적 시장 지배자로 군림하게 됐다. 그러나 새나라자동차는 권력형 비리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당초 5·16군사정부는 새나라자동차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기존 중소 자동차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새나라자동차에 부품 수입은 허가하되 완성차 수입은 엄격히 금지했다. 그런데 정부는 1962년 5월 12일 개막되는 아시아 영화제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150대와 일반 관광객 250대 등 포함 400대의 완성차 수입을 새나라자동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는 군사정부가 우리 국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나라자동차는 400대의 수입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1442대의 완성차와 소형 화물차

299대를 들여왔다. 이는 당시 자동차 시장의 수요 폭증에 비해 때때로 엄청난 이권이었고 면세특혜였다. 이 불법 수입차들은 영업용 택시로 둔갑, 당시 주류를 이루어왔던 지프형 부품 조립차인 ‘시발’택시를 거리에서 밀어냈다.

결국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도입과정과 영업용 택시 전환과정 등에 대한 국회의 진상조사가 착수됐다. 그 결과 배후에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전신)가 개입해 있음을 밝혀졌고 이것이 곧 위키힐 신축사건, 증권과중, 빠징꼬 부정 도입 등과 더불어 5·16군사정부를 강타한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이었다.

그 뒤 새나라자동차는 경영부실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됐고 1963년 5월4일에는 채권 은행인 한일은행의 관리업체로 지정됐다. 7월에 생산이 중단됐고 1963년 11월 신진공업의 ‘신성호’가 생산되면서 새나라시대는 막을 내렸다.

정부는 자동차 공업 효율화를 위한 생산체제 일원화조치와 부품 표준화에 착수, 국내 자동차 업계의 참여를 유도했다. 주요 내용은 ▲단일 차종만 생산하되 연비효율이 높은 소형차 위주로 할 것 ▲표준모형을 지정하고 중·대형차는 연료절감을 위해 디젤엔진을 탑재할 것 ▲부품을 표준화해 공용비율을 확대할 것 ▲제조공장을 차종별로 1곳만 허용해 일정기간 보호·육성할 것 등이었다.

아시아자동차도 처음에는 다양한 모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일원화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했으나 결국 일원화조치에 참여했다.

정부가 자동차공업 육성에 적극 나선 것은 당시 우리나라 물동량의 수송수단 의존률이 여객의 경우 자동차가 87.2%, 기차 및 항공·해운 12.8%였으며 화물의 경우 자동차가 99.9%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5·16군사정부는 산업화 인프라구축을 위해 자동차 공업 육성을 국가경제 발전의 선결과 제로 삼았다.



위중 (연론인)

**제3회 광주일보배 전국 남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2012년 11월 12일(월) 12:30분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참가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남자 순수 아마추어 골퍼에 한함  
제외대상 | 가. 현재 각종 프로협회에 등록된 골프선수 나. 아마추어 국가대표 및 상비군 다. 경기위원회에서 대회참가가 불가하다고 판정된 자.

경기방식 | 샷간, 샌더리오방식 적용  
적용규칙 | 대한골프협회에서 승인된 골프규칙과 경기위원회가 정한 로컬룰 적용  
참가인원 | 160명(40팀)

참가비 | 1인당(6만원) (그린피, 개별서비스, 캐디피, 그늘점등의 비용은 개인 부담)  
신청기한 | 2012년 10월 15일 ~ 10월 19일(금)  
참가신청 | 온라인접수 - 함평다이내스티 홈페이지(hpdynasty.co.kr) 광주일보사 홈페이지(kwangju.co.kr)

예금계좌 | 농협 641087-51-043326 (예금주 :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접수 마감 후 참가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참가기념품 | 골프용품, 만년필 등

**특전**

- 함평다이내스티CC 회원대우 및 준회원대우 등
  - 가. 우승(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회원대우
  - 나. 준우승(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회원대우, 주말 준회원대우
  - 다. 메달리스트(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회원대우
  - 라. 통계스트(1명) : 트로피 및 부상 마. 니어리스트(1명) : 트로피 및 부상
  - 바. 홀인원상(1명) : 중형급 승용차 1대 사. 행운상 : 상품 다수
- US-GTF 티칭프로라이센스 실기테스트 합격권 부여
  - 가. 남 77타, 장년부 79타, 시니어 82타
  - 나. 정년부 : 만 41세~49세(11월 12일 기준)
  - 다. 시니어 : 만50세 이상(11월 12일 기준)
- US-GTF 라이선스 소지자 함평다이내스티CC 주중 회원대우

주최 | 6S 광주일보사 | 주관 |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 진행 | US-GTF(KOREA)  
후원 | 전라남도, 함평군, 전남골프협회 | 문의 | 061-320-7777, 320-7700